

소련 정치가 보리스 옐친의 자서전

부패한 관료들의 내부세계 예리하게 파헤쳐



소련 급진개혁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관심의 표적이 된 보리스 옐친의 자서전이 나오자 서방언론들은 앞다투어 그 서평을 싣고 있다.

소련 개혁의 또다른 선봉을 자처하는 보리스 옐친의 자서전이 미국의 서밋출판사에서 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목은 「내 기질에 맞지 않는 것」(*Against the Grain*)인데 책이름이 무색하리만큼 옐친은 풍채가 당당하고 남자답게 생겼다. 서방 세계에서 보리스 옐친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르바초프가 물러났다고 가정할 때 그의 뒤를 이을 만큼 폭넓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사실상 보리스 옐친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러시아 급진개혁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 서방 매스컴의 관심의 표적이 되어왔다.

「뉴욕타임즈 북 리뷰」지에 따르면 옐친은 이 자서전에서 호소력있는 대중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부패한 소련 공산당 내부 세계를 통렬하게 꼬집고 있다. 신문 지상을 통해 단편적으로 소개된 대로 그는 공산당 고위간부들이 얼마나 많은 사치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때 정치국원을 지내기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인의 시각에서 예리하게 묘사하는데, 고르바초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에 따르면 「고르바초

프가 개혁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고르바초프 자신도 본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을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서방언론에서는 이 보리스 옐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약간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레이건 전대통령의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대중정치에 식상한 많은 지식인들은 옐친이 좀더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고의 소유자였기를 바랬던 것이 사실. 흔히 말하는 이념의 결여, 공산당 통치의 종식 이후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실망스러우리 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련의 실상을 비록 방향설정은 다르나마 담담하게 시인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그 성공여부는 둘째 치고라도—정열적으로 제시하여 서방 독서계에 엄청난 선풍을 몰고왔던 것과 비교할 때 정책제시의 결여는 옐친의 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옐친이 너무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 자서전이 독자적인 문예장르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그만큼 하나의 자서전에 담긴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라든지 진실성을 판별해낼 수 있는 예리한 감식안을 가진 서구 지식인들의 눈에, 옐친의 전투적인 문체에서 드러나는 자기성찰의 결여는 위태로우리 만큼 무모하고 맹목적인 자기과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다. 대부분의 전기적 일화들은 위인전이라고 해야 걸맞을 정도로 진부한 것들이며 그가 현재 갖고 있는 투사로서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옐친은 자기 삶과 시대의 저 밑바닥으로 깊숙이 잠수해 내려가는 대신 표면지대에 머물면서 바람직한 몇가지 단편상들에 매달려 있다고 어떤이는 꼬집기도 한다. 그러나 옐친은 군데군데에서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컨대 「고르바초프에게 옐친이 없었다면 그는 옐친 같은 인물을 일부러 만들 어내기라도 했을 것」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 이는 고르바초프가 급진 개혁파와 보수파의 틈바구니에서 양자를 교묘히 견제해가면서 자신의 구상을 조금씩 밀어붙이는 방식을 빚낸 표현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몰고왔던 선풍을 옐친의 자서전이 서방세계에서 불러 일으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책이 소련 내에서도 출간될 경우 고르바초프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다.

‘간디신화’에 도전한 傳記출간

인도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마하트마 간디(1869~1948)를 이제

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저술한 전기가 나와 흥미를 끈다. 비폭력운동의 선지자로서 평화를 호소했던 간디를 “결코 흠잡을 데 없는 聖人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사상과 인도문화의 자긍심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으로 고뇌했던 인물이며, 자신의 강렬한 정치적 야심을 끝내 버리지 않았던 인물”로 묘사한 이 책은 「간디, 희망의 포로」(*Gandhi: Prisoner of Hope*). 영국의 역사학자 주디스 M. 브라운에 의해 저술된 이 전기는 최근 공개된 풍부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복잡하고 요령부득이었던 한 인간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아무것도 가능한 것 같지 않은 77세의 노인이 단식선언으로 이루어낸 폭력의 종식은 곧 그에게 하나의 신화를 탄생시켜 주었다. 깡마르고 노쇠한 聖人이 사심을 버리고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모든 폭력이 극복됐다는 신화. 저자인 브라운은 바로 이러한 간디신화의 베일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간디는 1869년 인도 북서부 풀반다의 부유한 상인집안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부터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여 교육을 받다가 영국에서 3년간 유학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 봄베이에서 개업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한 후 그곳의 냉혹한 인종차별에 충격을 받은 간디는 ‘가짜 영국인’으로서의 엘리트의식을 벗어던지고 동포들의 굴욕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저항운동을 벌이면서 불굴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힌두교 경전, 톨스토이, 존 러스킨 등의 저작을 접하게 된 간디는 얼마 후 하나의 신념에 다다르게 된다. 즉, 진실한 인간성은 “공동의 이념과 노동으로 결속된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간디는 ‘사테이아크라하’를 제시한다. 힌두어로 ‘진리와 사랑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요컨대 ‘비폭력’을 상징하는 단어인 셈. 남아프리카에서의 성공적인 비폭력운동과 1915년 인도에 귀국한 이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기까지의 간디의 족적을 예리한 시각으로 이 책은 포착하고 있다. 간디와 접촉한 영국의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를 비난하는 자가 많았는데, 1932년 워싱턴 경은 분개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그에게 성인다운 일면이나 따뜻함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걸을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적 위선자였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인도의 정치가들 중에서도 간디를 혐오시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자기희생이라는 도덕관 아래 독선적인 고고함이 독특한 모습으로 뒤섞인 간디를 더이상 견디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간디의 태도는 점점 강해졌다. “그가 정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정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브라운은 쓰고 있다.

메스트셀러 얼마나 읽혔나

얼마전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지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의 베스트셀러 판매내역을 총집계해서 발표했다. 이 집계에 따르면 1989년에 미국에서는 모두 147억 달러어치의 책이 팔려, 전년대비 11%의 신장율을 보였는데 백만부 이상 팔린 책이 4권, 십만부 이상 팔린 책은 모두 63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예년에 볼 수 없는 몇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 있다. 즉, 그렇게 만만히 읽히지 않는 셸먼 루시디의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가 무려 74만 7000부 팔렸는가 하면, 작년 가을 나온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Foucault's Pendulum*)가 그 전해함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달새 27만 8000부 팔렸으며, 1988년에 나온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가 작년 한해에 40만부 이상 나가 발간 이래 모두 100만부가 넘는 밀리언셀러로 등장했다는 사실. 이 어려운 책들을 구입한 독자들은 과연 그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일반인들의 독서행태를 알아본 여론조사는 꽤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 수치들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사람들은 미묘한 자존심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예로 몇해 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의 편집장이었던 마이클 킨슬리는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던 3종의 베스트셀러 수집권에다 종이를 끼워넣고 거기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5달러를 주겠다고 적어놓은 일이었다. 그런데 5달이 넘도록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안왔다는 것. 판매부수만 가지고 그 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 즉 이들 베스트셀러가 실제로 얼마나 읽혔는지를 비록 추정치나마 가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책을 사는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향상 의욕이나 자기현시욕이 아니라, 그 책에서 실제로 느끼는 '재미'라는 만고불변의 상식이라는 점. 이 조사에서 '저자근접성 지수'(Author Comfort Index)와 '문장平易度계수(Simple Prose Coefficient)를 곱한 '완독지수'(Fully Read Index)라는 가상의 평가수치를 1989년 한해의 베스트셀러에 적용시켜 산출했다. 만점이

10점인 저자근접성지수에서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로버트 풀검이 9.7로 1위를 차지했고, 「당면한 위기」(Clear and Present Danger)의 톰 클랜시, 「대디」(Daddy)의 다니엘 스틸, 「다크 하프」(The Dark Half)의 스티븐 킹 등 관록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그에 못지 않은 점수를 얻은 반면, 셀먼 루시디나 스티븐 호킹은 1점밖에 얻지 못했다. 문장平易도계수에서도 루시디와 호킹은 각각 2.3점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셀먼 루시디의 책을 산 100여명의 독자 중 그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불과 2명밖에 안된다는 결론. 참고로 앞서 말한 로버트 풀검을 비롯한 네 작가의 책은 모두 완독지수 90% 이상을 기록했고, 「러시아 하우스」(The Russia House)의 추리작가 존 르 카레는 70%, 「마이턴」(My Turn)의 낸시 레이건은 50%, 그리고 예코의 낸시 레이건은 50%, 그리고 예코의 입장에선 아예 책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들 '바쁜 애서'들이 한결 고마울 수밖에 없는 노릇. 하지만 완독지수라는 가공의 지표를 얼마나 믿어야 하느냐는 항변의 소리 또한 만만치는 않다고.

유서깊은 갈리마르사의 내부분열

프랑스를 대표하는 출판사라면 얼른 우리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갈리마르 출판사다. 1911년 가스통 갈리마르와 앙드레 지드가 함께 세운 갈리마르사는 지난 80년 동안 마르셀 프루스트, 장 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뮈, 밀란 쿤데라 같은 20세기 문학적 거장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양산한 출판사로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출판계는 이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들간의 내부분열로 들끓고 있다. 대주주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갈리마르 집안 사람들. 그러나 재산상속을 둘러싼 후손들간의 압력을 그린 통속 멜로드라마가 무색할 정도로 갈리마르家 사람들의 애증과 반목은 뿌리깊다. 창립자인 가스통 갈리마르는 아들인 클로드를 미워하여 조카 미셸을 내심 후계자로 점찍었지만, 미셸은 교통사고로 카뮈와 함께 줄지에 유명을 달리했다. 가업을 이어받은 클로드 갈리마르는 딸 아들 크리스티앙을 신뢰, 그에게

일체의 경영권을 맡겼으나 지난 1983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둘째아들 앙트완에게 경영권을 떠넘겼고, 이때부터 갈리마르 집안 형제자매들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佛갈리마르社 내부분열의 주인공 프랑수아즈.

현재 크리스티앙, 프랑수아즈, 이사벨 3남매는 각각 12.5%의 주식을 가졌는데 반해 앙트완은 혼자 3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말이며 갈리마르에서 영어권 작품의 번역출판을 책임지고 있는 프랑수아즈가 앙트완이 2년전 아버지로부터 할값에 대량의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을 속여넘겼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그렇지 않았으면 정식으로 형제들이 골고루 상속받았을 수 있었을 것

을 앙트완이 교묘하게 가로챘다는 것이다. 더욱이 앙트완은 나머지 군소주주들의 지원으로 갈리마르 전체주의 51.5%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회사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나섰다. 그러자 프랑수아즈는 은밀하게 뉴욕의 한 은행에 갈리마르사의 자산평가를 의뢰, 그 결과 갈리마르사의 자산은 기존의 2배가 넘는 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그녀는 프리미엄을 얹어 줄 경우 그 누구에게건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나섰다. 앙트완은 난색을 표했고, 프랑스 문화성에선 기겁을 했다. 만에 하나 이 유서깊은 프랑스출판사의 주식 상당수가 외국인의 손에 들어갈 경우 그것이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에 끼칠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 실제로 몇몇 외국기업들이 구체적인 조건을 타진해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프랑수아즈를 돈밖에 모르는 "배신자"로 몰아붙이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결코 돈따위가 아니라고 한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독주하는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동등한 경영참여권"을 부여받고, 따라서 프랑스 문화의 방향설정에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려는 것뿐이라고.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90년 3월 25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BOURNE ULTIMATUM 로버트 러들럼(랜덤하우스) 베트남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혔던 과거를 한 교수가 연상하는 비극적 종말.	MEGATRENDS 2000 존 네스빗 & 페트리셔 에버딘(미로우) 향후 10년에 대한 예측을 담았다.	THE HUNT FOR RED OCTOBER 톰 클랜시(버클리) 잠수함 기장이 소련으로부터 핵기밀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검(아이비) 영감을 주는 내용의 에세이.
2	OH, THE PLACES YOU'LL GO! Dr. 소이스(랜덤하우스) 시와 산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한다.	BARBARIANS AT THE GATE 브라이언 버로우 & 존 헨리(하퍼 & 로우) RJR 나비스코의 통치기간중 일어났던 1988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	STAR 다니엘 스틸(델) 워싱턴과 할리웃에서 각각 스타덤에 오르는 어느 남녀의 엇갈린 인생행로.	NEW KIDS ON THE BLOCK 그레이스 카탈라노(벤티) 다섯명으로 구성된 십대 그룹사운드의 생활과 취미 등에 대한 이야기.
3	DEVICES AND DESIRES P.D 제임스(크노프)아담 벨그리쉬가 폭풍우 휘몰아치는 놀로크 해변의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한다.	LIAR'S POKER 마이클 루이스(노턴) 월 스트리트의 격동의 80년대.	MORNING GLORY 라 비를르 스펜서(조브) 조지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젊은 미망인이 진실한 사랑의 답을 얻는다.	BLIND FAITH 조 맥기니스(시그넷/NAL) 1984년 톰스 리버라는 한 여인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명되기 시작한 그 가족의 비극.
4	CLEAR AND PRESENT DANGER 톰 클랜시(피터남) C.I.A의 잭 라이언이 컬럼비아 마약계의 두목과 싸움을 벌인다.	WHAT I SAW AT THE REVOLUTION 페기 누닌(랜덤하우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의 전 연설문작성자의 기록.	WEB OF DREAMS V.C.앤드류(포켓) 고아들만 남겨진 어느 가족에게 달린 저주의 근원을 추적한다.	THE ROAD LESS TRAVELED M.스콧 펙(터치 스톤) 어느 정신과 의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감.
5	THE BAD PLACE 딘 R. 쿤츠(피터남) 어느 풍류평자가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한다.	MEANS OF ASCENT 로버트 A. 케로(크노프) 1948년 87표 득표로 승리한 런던 존슨의 상원의석에 대한 7년간의 집념.	THE EDGE 딕 프란시스(포셋) 호사스런 기자 여행에서 일어난 살인과 파괴.	BORN ON THE FOURTH OF JULY 론 코빅(포켓) 월남전 부상으로 귀향한 어느 해병대원의 자서전.
6	BITTER SWEET 라 비를르 스펜서(피터남)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할 수 없는 한 남자와 고등학교때 만난 후 미망인이 겪는 시련.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로버트 풀검(빌라드) 영감적 에세이들이 담긴 신작 모음.	PLAYMATES 로버트 B. 파커(버클리) 대학동구 세계에서의 스캔들을 스펜서의 눈으로 추적한다.	LOVE, MEDICINE & MIRACLES 버니 S. 시걸(페넬라/하퍼 & 로우) 환자의 정신과 감정상태의 중요성.
7	THE SCIONS OF SHANNARA 테리 브룩스(델레이/발렌틴) 감춰진 공상의 나라에서 진짜 마술을 펼치는 두 형제의 모험.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검(빌라드) 영감을 가득찬 에세이들.	METAMORPHOSIS 진 로라(포켓) 「스타트랙」여객의 「다음 세대」에 대한 열번째 소설.	MURDER IN LITTLE EGYPT 펄시 오브라이인(오닉스) 일리노이주의 한 내과의사가 쓴 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생애.
8	A RULING PASSION 주디스 미카엘(포세이돈) 어느 미망인이 텔레비전의 세계에 발을 디딤으로써 사랑과 복수, 살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THE CUCKOO'S EGG 클리포트 스톨(더블데이) 한 천체물리학자가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 독일까지 컴퓨터 핵폭탄 퍼뜨렸는가를 이야기한다.	STORMING INTREPID 페인 해리스(아이비) 미국과 소련간의 우주전쟁.	IN BROAD DAYLIGHT 해리 N. 맥린(델) 법정에 설 수 없었던 45명에 의해 증언된 스키드모어 중심기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살인사건.
9	VINELAND 토마스 핀천(리틀, 브라운)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60년대의 격정.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벤티) 우주에 대한 통일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물리학자의 연구평론.	THE FORTUNE 미카엘 콜다(워너) 미국 최고의 부호와 사랑에 빠지는 어느 젊은 여인의 비극적 사랑.	THE POWER OF MYTH 조셉 캠벨과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인생의 무대를 밝게 비춰주는 신화적 방법들.
10	COUNTERATTACK W.E.B. 그리핀(피터남) 펄 하버에서 과달카날에 이르는 흥미진진한 해양세계.	THE TEMPTING OF AMERICA 로저 펜로스(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컴퓨터가 결코 인간의 사고를 대체할 수 없다는 심리학자의 주장.	BLACK SAND 윌리엄 J. 키츠(벤티) 도난당한 고대 유물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뉴욕의 형사가 그리스 경찰과 만난다.	CHAOS 제임스 글레이크(랜덤)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질서와 유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과학".